



TORONTO ASSOCIATION FOR LEARNING & PRESERVING THE HISTORY OF WWII IN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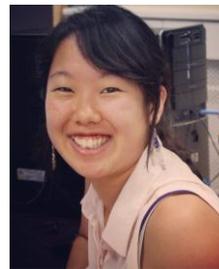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토론토 알파에서 또 하나의 소식을 전합니다.

일본군'위안부'에 관련한 UN 행사에 저희 알파 청년들이 참가하여 발표를 하게되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과 한국의 정대협이 공동으로 주체하는 UN HRC side event 로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복동 할머니의 증언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위안부'문제의 권위자들이 발표를 하는데, 젊은이의 목소리에 저희 알파의 청년들이 선정되어 저희 알파의 교육미션을 UN 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Jennie



Haruho

프로그램과 참가하는 학생의 프로파일은 첨부한 영문서에 사진과 함께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한국계 학생 허정연 (Jennie)양은 UT 영문과를 졸업하고 현재 OISE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이고 일본계 학생 하루호 쿠보타는 New Brunswick 에 있는 Mount Alice University 에서 International Relation 을 공부하고 있는 4 년차 대학생입니다.

Jennie 는 저희 알파에 고등학생들을 위한 Mentor 로 2 년간 봉사를 해왔고, Haruho 는 이번 여름에 summer intern 으로 알파에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의 UN 참여로 인해 캐나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리더들에게 전달이 되고, 더 많은 캐나다의 학생들이 알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토론토 알파는 1 억인 서명운동을 꾸준히 online 과 offline 으로 진행중이며 '위안부'문제에 관련한 panel discussion 도 10 월 22 일에 UT 와 Toronto Library 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안부" 문제 뿐만이 아닌 아시아 2 차세계대전의 역사를 통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도모하고자하는 저희 알파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조현주 이사 (416-299-0111 또는 judy.cho@torontoalpha.org)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ORONTO ASSOCIATION FOR LEARNING &
PRESERVING THE HISTORY OF WWII IN ASIA

감사합니다.